

# 충북 북부지역의 지역농협 경제사업 개발 방향에 관한 조사연구

김정주 \* · 이환영 \*\*

(\* 건국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농경제학과 · \*\* 제천농고)

## A Survey Study on the Agricultural Cooperative Business Evaluation by the Member Farmers with Special Emphasis on Chung-Buk Regional Cooperatives in Korea

Kim, Jung-Joo \* · Lee, Hwan-Young \*\*

\* Dep't of Agri-Econ., Kon-Kuk Univ., Chung-Ju, 380-701, Korea

\*\* Jechon Agri- High School., Jechon, 390-160, Korea

### 적 요

이 연구는 충북 북부 지역 농협이 추진하여야 할 경제 사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45개 지역 농협의 1995년도 경영 성과 자료를 분석하고 180명의 조합원과 33명의 직원에 대한 설문 조사를 1996년 4-5월에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농협 사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와 비용 보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조합의 과감한 합병을 통한 규모화가 요구되며 종합 농협 체제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설문 조사 결과 농협의 각종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조합원의 평가에서는 소득 개발 사업,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 농기계 판매 사업, 영농 자금 대출 업무, 공제금 지급, 농산물 수입 반대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고 농협의 경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서 긍정적 평가가 36.6%에 불과하면서도 지역의 경제 개발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냐는 질문에서는 61.7%가 농협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 농협이 경제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으나 지역의 경제 개발 주체로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가 가장 많이 추천한 충북 북부 지역 농협의 경제 사업은 관광 농업 사업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충북 북부 지역 농협 직원들은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낮고 협동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은 많지만 직장에 대한 자긍심은 높은 편이며 경제 사업을 가장 어려운 사업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농협 직원에 대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이론 교육과 경제 사업 담당 직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 I. 서 론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 한국의 농촌, 농업은 GATT/UR의 불리한 협상과 WTO의 출범과 함께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 농업, 농촌문제가 어려워 질수록 농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난국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구심체가 필요한 때이다. 우리 나라 농촌 지역에는 여러 가지 농업 관련 조직이 있으나 그 중에서 농업협동조합이 농촌 개발의 주도적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 협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은 중차대 하여 질 것이다. 협동조합은 인간의 지혜로써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업 관련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대기보다는 조합 직원을 위한 기관이 아니냐는 평을 받을 정도로 조합과 조합원이 밀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협동조합은 농민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의 판매, 저장, 가공, 농업 관련 산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것도 지역의 자연적 경제적 여건을 가장 적절히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충청북도 북부 지역은 충주, 제천 단양, 음성, 괴산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의 특징은 논 면적보다는 밭면적이 많은 산간으로 경종 농업으로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자연 경관이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고 있으며 농가 인구가 70%를 넘고 있는 농촌 지역으로 1996년 4월말 현재 45개(95년에 1개조합 합병)의 지역 농협이 설립되어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면밀히 분석, 이를 농협의 사업과 접목시키는 분석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경제 사업 위주의 농협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충북 북부 지역의 5개군 46개면에 설립된 45개 지역 농협의 경제 사업에 대한 농민 조합원의 평가를 조사하여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 방법

1).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지금까지 발표

된 각종 통계자료를 종합 정리한다.

2). 지금까지의 농협 경제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유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농민 조합원과 농협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 3. 선행 연구의 검토

김정주(1989)는 “농촌 지역 개발을 위한 단위 농협 운영 평가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농협 중앙회는 회원 조합인 전국 단위 농협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업적 평가 요령에 의하여 단위 농협 사업이나 활동을 평가하고 있으나 그 육성 방안이 농민 조합원의 욕구와는 괴리된 채 수행되고 있음을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기존의 수익성이나 사업 성장 위주의 농협 사업 촉진 방향에서 벗어나 농민 조합원의 실질적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단위 농협을 육성·지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성우(1996)는 “축협 지역 조합의 규모의 경제 및 비용 보완성에 관한 연구”에서 금융 자율화와 농축산물 시장개방화에 따라 농업 금융시장의 경쟁 심화, 농축산물의 상업화, 전문화 등에 의해 축협 지역 조합의 신용 사업 및 경제 사업 부문에 많은 어려움이 직면 할 것을 전제하고 앞으로 과감한 합병을 통한 규모의 확대와 비용 보완성을 고려한 사업 부문간 전문화를 실현함으로써 축협 지역 조합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II. 본 론

농협법 제 1조에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통하여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농협이 어떻게 농업 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겠는가? 이러한 명제와 관련지어 충북 북부 지역 협동조합을 포함한 전국 협동조합의 당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지역 농협의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우리 나라 농협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친 큰 변혁을 거쳤다. 1961년의 농업은행과 구 농협과의 통합, 1981년의 국보위에 의한 3단계 조직에서 2단계 조직으로의 전환, 1995년 중앙회장의 자격을 조합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민주적 관리에 충실한 법의 개정 등이 그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군조합을 없애고 2단계 조직으로 개편하면서 부터 1,400여 개의 지역 농협이 농협중앙회의 회원이 되면서 경영의 기본 단위가 지역 농협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면단위마다 조직된 지역 농협 경영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에는 미흡한 조합이 많았다. 따라서 농협중앙회는 1970년대 이동(里洞)조합을 면단위 조합으로 합병시켰던 경험을 바탕으로 전체 지역 농협수를 500여개로 줄여 통합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6년 4월말 현재 전국의 지역농협수는 1,352개로 1990년 1,425개에 비하여 70개 조합이 감소하였으나 최근에 이를 수목 감소 숫자는 적어져 실제로 이러한 합병의 어려움을 실감케 한다.

한편, 1996년 4월말 지역 농협의 지소수는 1,560개로 늘어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규모 경제를 실현하려는 노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물론 이러한 지소 수의 증대는 조합의 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어서 조합원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나 지소를 운영하는데 많은 고정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했어야 한다. 지역 농협의 사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과연 존재하는가?

< 표 2-1 > 농협 조합원 변동 추이

구 분	1990	1995	증감 (%)
조 합 수	1,425	1,352 ( - )	△ 5.4
지 소 수	934	1,560 (1.1	67.0
조합원 수	1,960천명	1,940천명 (1,213	△ 1.0
준조합원수	628천명	3,854천명 (2,842	508.9
직 원 수	39,638	50,191 ( 38.6	26.6

( ) 내는 조합당 실적임

자료: 농협중앙회 종합농협 경영계수 요약(제31집),1995

한국의 농협은 여러 가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중

합 농협 체제이다. 따라서 사업 자체만 보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다품목(multi-product) 생산업체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지역 농협은 신용 사업과 경제 사업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평균총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의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 존재 여부는 단일 품목 생산 모형에서와 같이 산출량(output quantities)에 대한 비용 탄력성을 계산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이는 평균 생산비를 한계 생산비로 나눈 값(SE=AC/MC)을 계산함으로써 가능하다.

즉,  $SE = \sum \partial \ln C / \partial \ln q_i = \sum i^m \alpha_i + \sum i^m \sum k^m \theta_i k \ln q_k + \sum i^n \sum j^n \theta_j \ln P_j$  --- (1) 로서  $SE < 1$ 이면 지역 농협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평균비용이 체감하여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SE > 1$ 이면 평균비용이 체증하여 규모의 비경제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 하에서 충북 지역 농협의 1995년 경제사업과 신용 사업의 경영 실적 자료를 트랜스 로그(초월대수) 비용 함수에 적용하여 파라미터를 추정하여 규모의 경제 판단 지표인 SE를 계산 한 바<sup>1)</sup> 모두 1보다 작아 농협 사업 전부에 규모의 경제가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 농협은 지속적으로 합병을 시도함으로써 사업 수행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 농협의 합병을 위한 원칙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그 절차에 대해서는 지역간 개인간의 이해의 상충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 표 2-2 > 전체 규모의 경제 추정 결과

구분	전체 ( $\sum \partial \ln C / \partial \ln q_i$ )	부분( $\partial \ln C / \partial \ln q_i$ )	
		신용사업 ( $Q_B$ )	경제사업 ( $Q_N$ )
추정치	0.0627	-0.0399	0.0548

### 2. 농협의 신용 사업과 경제 사업 분리 문제

1) 농협의 사업 실적

1990년과 1995년 전국 지역 농협의 사업 실적을 보면 가

1) 자세한 계산 절차는 김성우(1996)를 참고할 것

공 사업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최근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협의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되며 판매 사업과 이용 운송 사업의 증가율이 두드러진 것은 농협의 판매 사업 중점 시책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공제료 증가도 227%가 넘었는데 이는 사회의 안정으로 미래를 대비한 소비자의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 신용 사업과 경제 사업의 상호관계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농협의 사업에 대하여 일반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농협이 정작 힘써 일해야 할 판매 사업은 등한시하고 손쉬운 신용 사업만 하려고 든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세간의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개정된 법에는 중앙회 신용, 경제 사업의 분리 통합 여부는 별도의 기획단을 만들어 계속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과연 지역 농협의 신용 사업과 경제 사업은 보완관계인가, 경쟁 관계인가?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획득 가능한 충청북도 북부 지역 46개 지역 농협의 1995년 사업 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예수금 평균과 판매 사업 실적의 상호관계를 파악한 결과 이 두 변수 간에는 정(+)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sup>2)</sup> 다시 말해

서 신용 사업이 증가하면 판매 사업도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신용 사업과 경제 사업간의 상호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려면 두 사업간에 비용 보완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산출물간의 비용 보완성 분석은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단일 품목 체제에서는 적용할 수 없지만 독립된 기업의 성격을 띠며, 다품목 체제를 갖춘 산출물(outputs), 즉, 다목적(multi-purpose)의 성격을 가지며 사업 부문간 이원적 체제를 갖춘 사업체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산출물간의 결합 생산(joint production)이 비용의 지출면에서 효율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며, 비용 보완성 여부의 측정은 한 산출물의 한계 생산비가 타산출물의 생산이 증가됨에 따라 감소하는 특성을 가질 경우 산출물간 비용의 보완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용 보완성(IPCC)은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단, 여기에서 C는 비용, q는 산출량을 말한다.

< 표 2-3 > 지역 농협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용사업		공제 사업	경 제 사 업							
	예수금 평잔순증	차입금 신규	공제료	판 매	구 매	생활물자	가 공	창 고	이 용	운송및 기타	
90	총 액	2,567,09	5,306,26	505,754	2,659,56	1,263,64	703,146	9,387	57,840	1,517	22,240
	조합당	1,801	3,724	355	1,866	887	493	7	41	1	16
	구성비	19.6	40.5	3.8	20.2	9.6	5.3	0.1	0.4	0.1	0.2
95	총 액	3,997,21	8,534,47	1,657,88	6,475,38	2,189,40	1,489,55	707,709	75,854	13,279	53,725
	조합당	2,948	6,294	1,223	4,775	1,615	1,098	522	56	979	40
	구성비	15.7	33.8	6.5	25.7	8.6	5.9	2.8	0.3	0.1	0.2
	성장률	55.7	60.8	227.4	143.5	73.3	111.8	1911.1	121.1	775.3	141.6

주) 성장률은 운송 및 기타 항목에 포함되었음.  
 자료 : 농협중앙회, 「종합농협경영계수요람」, 각연도.

2)  $Y=1264.379 + 0.3451 X$  (  $R^2$ : 0.3451, T-value: 4.8155, Df: 44)

$$IPCC = \frac{\partial^2 C}{\partial q_i \partial q_j} = \frac{C}{q_i q_j} \left( \frac{\partial^2 \ln C}{\partial \ln q_i \partial \ln q_j} + \frac{\partial \ln C}{\partial \ln q_i} \cdot \frac{\partial \ln C}{\partial \ln q_j} \right), \quad (i \neq j) \text{-----}(2)$$

비용 보완성 여부는 (2)식의 괄호 안에 있는  $\partial^2 \ln C / \partial \ln q_i \partial \ln q_j$ 의 부호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추정된 비용 함수 계수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다.

즉,  $\partial^2 \ln C / \partial \ln q_i \partial \ln q_j < 0$ 일 경우, 비용 보완성이 존재하여 비용 보완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partial^2 \ln C / \partial \ln q_i \partial \ln q_j > 0$ 일 경우 산출물간의 비용 보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협동조합은 신용 사업과 경제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종합 농협 형태이므로 다품목 체계로 볼 수 있어서 위의 비용 함수를 추정하여 비용 보완성 지표를 계산함으로써 농협의 신용 사업과 경제 사업간에 비용의 보완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충북 지역 농협의 신용 사

< 표 2-4 > 사업 부문별 비용 보완성 추정 결과

구 분	추 정 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Q <sub>B</sub> and Q <sub>N</sub> )	-3.005

업과 경제 사업간의 비용 보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1995년 충북지역 농협의 경영 성과 자료를 일반화된 트랜스 로그(초월 대수) 비용 함수에 적용하여 필요한 파라메타를 계측, 비용 보완성 판단 지표를 계산하였다.<sup>3)</sup>

즉, 비용 보완성 계수가 -3.005로 0보다 작게 나타나 산출물간의 비용 보완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충북 농협이 신용 사업과 경제 사업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의 종합 농협 형태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농협의 조수익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조합원의 편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각종 사업 수행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수익이 많아야 조합원의

< 표 2-5 > 회귀 방정식 추정 결과

구 분	회귀계수	T-값	유의수준	β-값
판 매 사 업 실 적(X <sub>1</sub> )	0.0331	2.572	**	0.2287
구 매 사 업 실 적(X <sub>2</sub> )	0.0598	1.698		0.1437
생활물자 사업실적(X <sub>3</sub> )	0.0242	0.163		0.0200
창 고 사 업 실 적(X <sub>4</sub> )	-0.2164	-0.163		-0.0133
예 수 금 실 적 (X <sub>5</sub> )	0.0220	1.829	**	0.2646
상호금융대출금실적(X <sub>6</sub> )	0.0320	2.114	**	0.3481
공 제 사 업 실 적 (X <sub>7</sub> )	0.0007	0.172		0.0126
납 입 출 자 금 (X <sub>8</sub> )	0.5014	0.971		0.1093
R <sup>2</sup>	0.8937			
DF	28			
추 정 방 법	OLS			

\* : 1% 이내, \*\* : 5%, \*\*\* 10%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임.

주) β-값(표준회귀계수) = β<sub>ki</sub> · S<sub>ki</sub>/S<sub>y</sub>

여기서 β<sub>ki</sub> : i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S<sub>ki</sub> : i 독립변수의 표준편차

S<sub>y</sub> : 종속변수의 표준편차

3) 자세한 계산 절차는 김성우(1996)를 참조할 것.

편익을 위한 활동도 할 수 있다는 경영주의적 입장과 조합의 수익 증대보다는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증대에 경영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봉사주의적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의 경영 목표를 일단 조수익의 증대에 두고 조수익의 극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충북 북부 지역 농협의 조수익을 종속변수로 하고 경영 계수인 판매, 구매, 생활 물자, 창고, 예수금, 상호 금융, 공제 사업, 납입 출자금 등의 경영 실적을 독립변수로 한 다중 선형 회귀 방정식을 가정하여 파라메타를 추정한 결과 종속변수 즉, 조합의 조수익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것은 상호 금융 대출금 실적, 예수금 실적 등 신용 사업 실적인 것으로 파악되어 충북 북부 지역 지역농협에서 경제 사업보다는 신용 사업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알 수 있었다.

### 3. 충북 북부 지역 농협의 경제 사업 개발 방안

가. 충북 북부 지역 농협 조합원에 대한 설문 조사 개요  
 앞장에서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생산자나 소비자들이 자본주의 체제내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스스로 높이려는 자구적인 조직체이다. 또한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소유주인 동시

에 이용자라는 특징이 있으므로 협동조합 사업도 조합원의 편익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농업협동조합은 각종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인이며, 이용자인 조합원을 위한 자기 보다는 협동조합 직원을 위한 조합이라든지, 정부의 허부 기관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근거가 있는가? 과연 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평가는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1996년 3월 10일 ~ 4월 10일의 1개월 동안 충북북부 지역 농협의 농민 조합원 중 무작위로 추출된 180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응답자의 특성을 알아본 바, 설문 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인구학적 자료는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7.9세로 농업 인구의 노령화 현상은 여기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응답 대상 농민 조합원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 2.2%, 고등학교 졸업 46.2%, 중학교 졸업 28.3%, 국민학교 졸업 23.3% 이고, 학령으로 환산한 응답자의 학력을 보면 9.8년으로 고등학교 1학년 수료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농민 조합원이 48.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무학인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표 3-1> 응답자의 인구학적 자료

연 령			학 력		
범 위	응답자수 (명)	비율 (%)	학 력	응답자수 (명)	비율 (%)
60세 이상	23	12.8	대학교 졸업	4	2.2
50세 이상 ~ 60세 미만	45	25.0	고등학교 졸업	83	46.2
40세 이상 ~ 50세 미만	92	51.0	중학교 졸업	51	28.3
30세 이상 ~ 40세 미만	19	10.6	국민학교 졸업	42	23.3
20세 이상 ~ 30세 미만	1	0.6	무 학	0	0.0
무 응 답	0	0.0	무 응 답	0	0.0
합 계	180	100.0	합 계	180	100.0
평균 연령 : 47.9세 표준 편차 : 8.7세 변이 계수 : 18.1 % 최고치 : 71 세 최저치 : 27 세			평균 학령 : 9.8년 표준 편차 : 2.6년 변이 계수 : 26.2 %		

한편, 응답 대상 농민 조합원의 연간 평균 소득은 2,093만원에다가 변이계수는 80%가 넘어 조합원간 소득 격차가 비교적 큰 편이며 평균 출자 규모는 37만원 수준에 변이 계수가 98.5%에 달해 조합원간 출자 규모에 있어서도 편차가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응답 농민 조합원의 58.3%는 준산간 지역에, 21.1%는 산간 지역에, 7.2%는 관광지 주변에, 13.4%가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거주지로부터 농협까지의 거리는 응답자의 71.6%가 4km 이내에, 나머지 28.4%는 4km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응답 조합원의 거주지로부터 농협까지의 거리와 출자 규모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출자 규모를 종속변수로 조합까지의 거리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방정식을 가정하고 해당 계수를 추정한 바<sup>4)</sup>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조합에 대한 출자 규모와 조합과의 거리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한 응답 대상 농민 조합원의 주소득원으로는 미작

(23.9%), 밭작물(18.9%), 특용 작물(17.8%), 과수(16.1%), 축산(15.0%), 기타(8.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농 교육 이수 기간에 있어서는 1주 이내가 53.4%가 가장 많고 1주 이상~2주 이내는 13.9%, 2주 이상~1개월 미만은 12.2%,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5.0%,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3.9%, 6개월 이상~1년 미만 2.2%, 1년 이상은 5.6%로 1주 이내에 영농 교육을 이수한 조합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영농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응답 대상 농민 조합원도 3.3%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이 설문조사에 응한 농민 조합원은 48세 정도의 연령에 고등학교 1학년 수료 수준의 학력을 보유하고 1주 이내의 영농 교육을 이수한 자로 주로 준산간 지역에서 조합으로부터 4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미작, 과수, 축산을 주 소득원으로 하여 연간 2,093만원의 소득을 올리면서 37만원의 출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응답자의 연간 소득 및 출자 규모

연 간 소 득			출 자 규 모		
범 위	응답자수 (명)	비 율 (%)	범 위	응답자수 (명)	비 율 (%)
5000만원 이상	10	5.6	100만원 이상	14	7.8
4000만원 ~ 5000만원	8	4.4	70만원 ~ 100만원	5	2.8
3000만원 ~ 4000만원	25	13.9	40만원 ~ 70만원	37	20.6
2000만원 ~ 3000만원	51	28.3	10만원 ~ 40만원	113	62.8
1000만원 ~ 2000만원	58	32.2	5만원 ~ 10만원	7	3.9
1000 만원 미만	28	15.6	5만원 미만	4	2.1
무 응 답	0	0.0	무 응 답	0	0.0
합 계	180	100.0	합 계	180	100.0
연간 평균 소득 : 2,093 만원 표준 편차 : 1,685 만원 변이 계수 : 80.5 % 최고치 : 15,000 만원 최저치 : 70 만원			평균 출자 규모액 : 368,861 원 표준 편차 : 363,565 원 변이 계수 : 98.5 % 최고치 : 2,450,000 원 최저치 : 10,000 원		

4)  $Y = 398508.9 - 13613.8 X$ , 단, Y : 출자액, X : 조합까지의 거리,  $R^2 : 0.0022$ ,  
T-value: 0.6285, D.F: 178

<표 3-3> 응답자의 거주 지역

거주 지역	구분	산간	준산간	관광지 주변	기타	무응답	합계	
	응답자수 (명)	38	105	13	24	0	100	
	비율 (%)	21.1	58.3	7.2	13.4	0.0	100.0	
지역농협까지의 거리	구분	2 km 이내	4 km 이내	6 km 이내	8 km 이내	8 km 이상	무응답	합계
	응답자수 (명)	64	65	26	5	20	0	180
	비율 (%)	35.6	36.0	14.4	2.9	11.1	0.0	100.0

<표 3-4> 응답자의 주소득원

주소득원	구분	미작	축산	밭작물	과수	특용 작물	기타	무응답	합계
	응답자수 (명)	43	27	34	29	32	15	0	180
	비율 (%)	23.9	15.0	18.9	16.1	17.8	8.3	0.0	100.0

<표 3-5> 응답자의 영농 교육 이수 경험

영농 교육 이수 기간	구분	1년 이상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	1개월 이상	2주 이상	1주 이상	1주 이내	교육받은 적 없음	무응답	합계
	응답자수 (명)	10	4	7	9	22	25	96	6	1	180
	비율 (%)	5.6	2.2	3.9	5.0	12.2	13.9	53.4	3.3	0.5	100.0

나. 설문 조사 분석 결과

지역 농협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 및 활동을 편의상 ① 지도 사업, ② 구매 사업, ③ 판매 사업, ④ 창고 및 이용 사업, ⑤ 신용 사업, ⑥ 공제 사업, ⑦ 복지 활동, 그리고 ⑧ 농정 활동의 8가지로 나누었다.

이러한 농협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하여 농민 조합원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사업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을까?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앞서 말한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역 농협의 지도 사업에 대한 농민 조합원의 평가

우선 지역 농협의 사업 가운데에서 지도 사업에 대한 농민 조합원의 평가를 보면 ① 농업 경영 지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66.6%, ② 지역 실정에 적합한 소득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81.3%, ③ 농업 생산 기술 지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55.5%, ④ 또한 농민 조직 육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70.5%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⑤ 영농 후계자에 대해서는 48.9%가, ⑥ 부녀 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41.1%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한편, ⑦ 농민 교육에 대한 평가에서는 60.0%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⑧ 농촌 어린이 활동 지원에 대한 평가에서는 56.1%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요컨대 지역 농협의 지도 사업, 지역 실정에 맞는 소득 사업 발굴, 농민 조직 육성 등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부녀 활동 지원, 영농 후계자 육성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농업 생산 기술 지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낮은 것은 농협이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지도사업임에도 실제로 그 기능이 미흡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 지역 농협의 구매 사업에 대한 농민 조합원의 평가  
 농협의 구매 사업에 대한 농민 조합원의 평가를 살펴보면  
 ① 비료 판매 사업에 대해서는 63.4%, ② 농약 판매 사업에  
 대해서는 60.6%, ③ 영농 자재 판매 사업에 대해서는  
 70.0%, ④ 유통 취급소 설치·운영사업에 대해서는 67.2%,  
 ⑤ 농기계 서비스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81.1%, ⑥ 생활 물  
 자 조달 사업에 대해서는 76.1%, ⑦ 배합 사료 판매 사업에  
 대해서는 65.5%, ⑧ 농기계 공급 사업에 대해서는 82.8%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요컨대 지역 농협의 구매 사업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는 농기계를 공급하는 것과 농기계 서비  
 스 센터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농약이나 비료 판매  
 사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역 농협의 판매 사업에 대한 농민 조합원의 평가  
 농협의 판매 사업에 대한 농민 조합원의 평가에서는 ①  
 미곡의 공동 판매에 70.5%, ② 과채류의 공동 판매에

74.4%, ③ 축산물의 공동 판매에 63.9%, ④ 특수 작물의 공  
 동 판매에 76.1%, ⑤ 공동 판매 시설의 확충에 71.7%, ⑥  
 농산물 가격 정보 제공에 76.1%, ⑦ 지역 자체 상표 개발이  
 나 지역 특산품의 소포장 개발 보급에 76.6%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요컨대 판매 사업에 대한 농민 조합원의 평가는 특산품의  
 개발 및 판매와 가격 정보 제공에 높은 평가를 하는 반면 축  
 협 등의 별도 조직이 있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긍  
 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4) 지역 농협의 신용 사업에 대한 농민 조합원의 평가  
 농협의 신용 사업에 대한 농민 조합원의 평가에서는 ①  
 신용 보증 업무에 대해서는 76.1%, ② 영농 자금 대출에 대  
 해서는 85.6%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자금 공급  
 원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아직도 영농 자금 대출이 중요한  
 협동조합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고 있다.

<표 3-6> 지역 농협의 지도 사업 대한 농민 조합원의 평가

구 분	항 목	응 답 자 수 (%)						합계	
		매우 유익하고 시급함	유익하 고 시급함	소계	그저 그렇다	불필 요함	매우 불필요 함		소계
지 도 사 업	1. 농업 경영 지도를 해주는 일	67 (37.2)	53 (29.4)	120 (66.6)	32 (17.8)	21 (11.7)	7 (3.9)	28 (15.6)	180 (100.0)
	2. 지역 실정에 맞는 소득 사업 발굴	93 (51.9)	53 (29.4)	146 (81.3)	16 (8.8)	12 (6.6)	6 (3.3)	18 (9.9)	180 (100.0)
	3. 농업 생산 기술을 지도해 주는 일	60 (33.3)	40 (22.2)	100 (55.5)	38 (21.1)	29 (16.1)	13 (7.3)	42 (23.4)	180 (100.0)
	4. 농민 조직을 육성하는 일	67 (37.2)	60 (33.3)	127 (70.5)	31 (7.2)	18 (10.0)	4 (2.3)	22 (12.3)	180 (100.0)
	5. 영농 후계자 육성	42 (23.3)	46 (25.6)	88 (48.9)	40 (22.2)	32 (17.8)	20 (11.1)	52 (28.9)	180 (100.0)
	6. 부녀 활동을 지원하는 일	26 (14.4)	48 (26.7)	74 (41.1)	62 (34.5)	33 (18.3)	11 (6.1)	44 (24.4)	180 (100.0)
	7. 농민 교육을 실시하는 일	57 (31.7)	51 (28.3)	108 (60.0)	41 (22.8)	20 (11.1)	11 (6.1)	31 (17.2)	180 (100.0)
	8. 농촌 어린이 지원	62 (34.5)	39 (21.6)	101 (56.1)	43 (23.9)	22 (12.2)	14 (7.8)	36 (20.0)	180 (100.0)

( ) 내는 응답자 비율

<표 3-7> 지역 농협의 구매 사업에 대한 농민 조합원의 평가

구분	항 목	응답자 수 (%)							합계
		매우 유익하고 시급함	유익하고 시급함	소계	그저 그렇다	불필 요함	매우 불필요함	소계	
구 매 사 업	1. 비료를 판매하는 일	62 (34.5)	52 (28.9)	114 (63.4)	54 (30.0)	9 (5.0)	3 (16.0)	12 (21.0)	180 (100.0)
	2. 농약을 판매하는 일	54 (30.0)	55 (30.6)	109 (60.6)	53 (29.4)	15 (8.3)	3 (1.7)	18 (10.0)	180 (100.0)
	3. 영농 자재를 판매하는 일	62 (34.5)	64 (35.5)	126 (70.0)	40 (22.2)	9 (5.0)	5 (2.8)	14 (7.8)	180 (100.0)
	4. 유류 취급소를 설치·운영하는 일	68 (37.8)	53 (29.4)	121 (67.2)	39 (21.7)	7 (3.9)	13 (7.2)	20 (11.1)	180 (100.0)
	5. 농기계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는 일	99 (55.0)	47 (26.1)	146 (81.1)	18 (10.0)	9 (5.0)	7 (3.9)	16 (8.9)	180 (100.0)
	6. 생활 필수품을 조달하는 일	79 (43.9)	58 (32.2)	137 (76.1)	31 (17.2)	7 (3.9)	5 (2.8)	12 (6.7)	180 (100.0)
	7. 배합 사료를 판매하는 일	51 (28.3)	67 (37.2)	118 (65.5)	40 (22.2)	14 (7.8)	8 (4.5)	22 (12.3)	180 (100.0)
	8. 농기계를 공급하는 일	109 (60.6)	40 (22.2)	149 (82.8)	18 (10.0)	6 (3.3)	7 (3.9)	13 (7.2)	180 (100.0)

( ) 내는 응답자 비율

5) 지역 농협의 창고 및 이용 사업에 대한 평가  
지역 농협의 창고 및 이용 사업에 대한 농민 조합원의 평가에서는 ① 농산물이나 영농 자재의 운송 업무에 대해서는 74.4%, ② 농산물의 보관 및 저장 업무에 대해서는 66.1%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6) 지역 농협의 공제 사업에 대한 농민 조합원의 평가  
농협의 공제 사업에 대한 농민 조합원의 평가 중 ① 불의의 재난에 대한 공제금 지급 업무에 대해서는 82.2%, ②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보장 수단의 제공 업무에 대해서는 73.9%, ③ 공제 가입자에 대한 수익금 환원업무에 대해서는 73.9%, ④ 노후 생활 안정 자금 제공 업무에 대해서는 74.5%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전반적으로 지역 농협의 공제 사업에 대한 농민 조합원의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공제 사업의 보장성이나 저축성에 있어서의 효용에 대해 농민 조합원이 많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지역 농협의 복지 증진 활동에 대한 농민 조합원의 평가

농협의 복지 증진 활동에 대한 농민 조합원의 평가는 ① 농촌 주택 개량 사업에 71.1% ② 이용고 배당에 70.0%, ③ 농촌 청년 활동의 지원에 55.5%, ④ 농촌 생활 환경 개선 사업에 62.7%, ⑤ 조합 시설물 이용 사업에 54.5%, ⑥ 편의 시설 대여 사업에 48.4%, ⑦ 조합원에 대한 조합 직원의 친절 봉사에 78.8%, ⑧ 전통 문화 계승 및 지역 주민의 단합을 위한 활동에 62.8%, ⑨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활동 개최 등의 활동에 53.9%의 조합원이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요컨대, 지역 농협의 복지 활동에 대한 농민 조합원의 평가에서는 조합원에 대한 조합 직원의 친절 봉사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3-8> 지역 농협의 판매 사업에 대한 농민 조합원의 평가

구분	항 목	응 답 자 수 (%)						합계	
		매우 유익하고 시급함	유익하고 시급함	소계	그저 그렇다	불필 요함	매우 불필요함		
판 매 사 업	1. 미곡을 공동으로 판매해 주는 일	76 (42.2)	51 (28.3)	127 (70.5)	35 (19.5)	8 (4.4)	10 (5.6)	18 (10.0)	180 (100.0)
	2. 과채류를 공동으로 판매해 주는 일	81 (45.0)	53 (29.4)	134 (74.4)	26 (14.4)	10 (5.6)	10 (5.6)	20 (11.2)	180 (100.0)
	3. 축산물을 공동으로 판매해 주는 일	69 (38.3)	46 (25.6)	115 (63.9)	23 (18.3)	18 (10.0)	14 (7.8)	32 (17.8)	180 (100.0)
	4. 특수 작물을 공동으로 판매해 주는 일	86 (47.8)	51 (28.3)	137 (76.1)	28 (15.6)	6 (3.3)	9 (5.0)	15 (8.3)	180 (100.0)
	5. 공판 시설을 확충하는 일	81 (45.0)	48 (26.7)	129 (71.7)	27 (15.0)	11 (6.1)	13 (7.2)	24 (13.3)	180 (100.0)
	6. 농산물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일	94 (52.2)	43 (23.9)	137 (76.1)	24 (13.3)	10 (5.6)	9 (5.0)	19 (10.6)	180 (100.0)
	7. 지역 특산품의 상품성 제고를 위한 활동	103 (57.2)	35 (19.4)	138 (76.6)	31 (17.2)	4 (2.3)	7 (3.9)	11 (6.2)	180 (100.0)

( ) 내는 응답자 비율

<표 3-9> 지역 농협의 신용 사업에 대한 농민 조합원의 평가

구분	항 목	응 답 자 수 (%)						합계	
		매우 유익하고 시급함	유익하고 시급함	소계	그저 그렇다	불필 요함	매우 불필요함		
신용 사업	1. 영농자금을 대출받을 때 신용 보증을 해주는 일	77 (42.8)	60 (33.3)	137 (76.1)	26 (14.5)	3 (1.6)	14 (7.8)	17 (9.4)	180 (100.0)
	2. 영농 자금을 대출해주는 일	118 (65.6)	36 (20.0)	154 (85.6)	12 (6.7)	5 (2.7)	9 (5.0)	14 (7.7)	180 (100.0)

( ) 내는 응답자 비율

<표 3-10> 지역 농협의 참고 및 이용 사업 대한 농민 조합원의 평가

구분	항 목	응 답 자 수 (%)							합계
		매우 유익하고 시급함	유익하고 시급함	소계	그저 그렇다	불필 요함	매우 불필요함	소계	
참 고 및 이 용 사 업	1. 농산물이나 영농자재를 운 송해주는 일	71 (39.4)	63 (35.0)	134 (74.4)	35 (19.5)	5 (2.8)	6 (3.3)	11 (6.1)	180 (100.0)
	2. 농산물을 농협창고에 보관 및 저장해 주는 일	57 (31.7)	62 (34.4)	119 (66.1)	32 (17.8)	20 (11.1)	9 (5.0)	29 (16.1)	180 (100.0)

( ) 내는 응답자 비율

<표 3-11> 지역 농협의 공제 사업에 대한 농민 조합원의 평가

구분	항 목	응 답 자 수 (%)							합계
		매우 유익하고 시급함	유익하고 시급함	소계	그저 그렇다	불필 요함	매우 불필 요함	소계	
공 제 사 업	1. 불의의 재난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해주는 일	98 (54.4)	50 (27.8)	148 (82.2)	18 (10.0)	7 (3.9)	7 (3.9)	14 (7.8)	180 (100.0)
	2.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보장수단 을 제공해주는 일	75 (41.7)	58 (32.2)	133 (73.9)	31 (17.2)	7 (3.9)	9 (5.0)	16 (8.9)	180 (100.0)
	3. 공제가입자에 대해 수익금을 환원해주는 일	81 (45.0)	52 (28.9)	133 (73.9)	22 (12.2)	14 (7.8)	11 (6.1)	25 (13.9)	180 (100.0)
	4.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제공해 주는 일	75 (41.7)	59 (32.8)	134 (74.5)	28 (15.6)	8 (4.4)	10 (5.5)	18 (9.9)	180 (100.0)

( ) 내는 응답자 비율

8) 지역 농협의 농정 활동에 대한 농민 조합원의 평가  
 농협의 농정 활동에 대한 농민 조합원의 평가를 보면 ①  
 농산물 수입 반대 운동에 83.9%가 긍정적 평가를 하였고,  
 ② 조합장의 민주적 선출에 대해서는 79.5%가, ③ 조합 임  
 직원의 지방 의회 및 정계 진출을 통한 농민 권익 대변 활동  
 에 대해서는 61.6%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아직도 농민 조  
 합원은 농산물 수입 반대에 대한 농협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9) 기존의 농협 경제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새로운 경제 사  
 업 추진 주체에 대한 의견

이번에는 지역 농협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제 사업을 종합  
 적으로 평가하도록 설문을 제시한 한 바 전체 응답 대상 농  
 민 조합원 중 36.6%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표 3-12> 지역 농협의 복지 증진 활동에 대한 농민 조합원의 평가

구분	항 목	응답자 수 (%)						소계	합계
		매우 유익하고 시급함	유익하고 시급함	소계	그저 그렇다	불필 요함	매우 불필요함		
복 지 활 동	1. 농촌 주택을 개량하는 일	75 (41.7)	53 (29.4)	128 (71.1)	32 (17.8)	21 (11.7)	7 (3.9)	28 (15.6)	180 (100.0)
	2. 조합이용량에 따른 이용고 배당	73 (40.6)	53 (29.4)	126 (70.0)	16 (8.8)	12 (6.6)	6 (3.3)	18 (9.9)	180 (100.0)
	3. 농촌청년을 위해 지원해 주는 일	60 (33.3)	40 (22.2)	100 (55.5)	38 (21.1)	29 (16.1)	13 (7.3)	42 (23.4)	180 (100.0)
	4.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일	53 (29.4)	60 (33.3)	113 (62.7)	31 (7.2)	18 (10.0)	4 (2.3)	22 (12.3)	180 (100.0)
	5. 조합시설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일	52 (28.9)	46 (25.6)	98 (54.5)	40 (22.2)	32 (17.8)	20 (11.1)	52 (28.9)	180 (100.0)
	6. 조합원편의 시설을 운영하는 일	39 (21.7)	48 (26.7)	87 (48.4)	62 (34.5)	33 (18.3)	11 (6.1)	44 (24.4)	180 (100.0)
	7. 조합원에 대한 조합직원의 친절 봉사	91 (50.5)	51 (28.3)	142 (78.8)	41 (22.8)	20 (11.1)	11 (6.1)	31 (17.2)	180 (100.0)
	8. 전통문화계승 및 지역주민의 단합을 도모하는 일	58 (32.2)	55 (30.6)	113 (62.8)	44 (24.5)	12 (6.6)	11 (6.1)	23 (12.7)	180 (100.0)
	9.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활동 개최	45 (25.0)	52 (28.9)	97 (53.9)	45 (25.0)	24 (13.3)	14 (7.8)	38 (21.1)	180 (100.0)

( ) 내는 응답자 비율

<표 3-13> 지역 농협의 농정 활동에 대한 농민 조합원의 평가

구분	항 목	응답자 수 (%)						소계	합계
		매우 유익하고 시급함	유익하고 시급함	소계	그저 그렇다	불필 요함	매우불 필요함		
농 정 활 동	1. 농산물 수입 반대 운동	112 (62.2)	39 (21.7)	151 (83.9)	15 (8.4)	4 (2.2)	10 (5.5)	14 (7.7)	180 (100.0)
	2. 조합장을 민주적으로 직접 선출	102 (56.7)	41 (22.8)	143 (79.5)	25 (13.9)	1 (0.5)	11 (6.1)	12 (6.6)	180 (100.0)
	3. 조합임직원의 지방의회 및 정계진출을 통해 농민권익을 대변하는 일	69 (38.3)	42 (23.3)	111 (61.6)	39 (21.7)	16 (8.9)	14 (7.8)	30 (16.7)	180 (100.0)

( ) 내는 응답자 비율

<표 3-14> 기존의 경제 사업 평가

구분	항 목	응답자수 (명)	비율 (%)
경 제 사 업 평 가	매우 적절한 사업이었다.	6	3.3
	적절한 사업이었다.	60	33.3
	그저 그렇다.	97	53.9
	부적절한 사업이었다.	11	6.1
	아주 부적절한 사업이었다.	3	1.7
	잘 모르겠다.	3	1.7
합 계		180	100.0

이처럼 농협의 경제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낮은 것은 아직도 지역 농협의 경제 사업이 농민 조합원에게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 사업의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한 농협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번에는 농촌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 사업을 개발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중앙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를 제외하고 농업 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반응이 61.7%가 되어 현재 농협의 경제 사업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면서도 미래의 농업 협동조합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협은 이러한 조합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표 3-15> 새로운 경제 사업 개발 주체

구분	항 목	응답자수 (명)	비율 (%)
경제사업개발주체	중앙정부	16	8.9
	지방자치단체	48	26.6
	농업협동조합	111	61.7
	일반개인	5	2.8
	기 타	0	0.0
	무 응 답	0	0.0
	합 계	180	100.0

10) 지역 실정에 적합한 경제 사업 개발 분야

지역 실정에 적합한 경제 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의견을 보면 42.3%가 주말 농장 개설, 노인 휴양 단지인 실버타운

개발, 청소년 수련장과 같은 휴양지 개발 운영, 관광지 주변의 민박촌 개발·운영 및 지역 농·특산물의 관광지 상품화, 관광지 주변 농산물 판매장·판매대 운영, 관광 코스 개발과 안내 사업의 추진 등을 제안하여 지역 농협에서 관광 농업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제 사업과 접목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3-16> 지역 실정에 적합한 경제 사업 개발 가능 분야

항 목	응답자수 (명)	비율 (%)
관광 농업 개발	82	42.3
특용 작물 가공 공장 운영	62	32.0
식품 가공 사업 운영 (소비자 주문형 장류·양념류)	35	18.0
농산물 집하장 및 저온 창고 운영	5	2.6
농협 직영 종합 농기계 수리 센터 및 자동차 정비소 운영	4	2.1
농협 직영 농용 자재 공급 센터 운영	3	1.5
미곡 종합 처리장 운영	2	1.0
농협 직영 유류 취급소의 확대 및 참여	1	0.5
합 계	194	100.0

\* 조합원당 복수 응답

다음으로는 응답 대상 농민 조합원의 32.0%는 특용 작물 가공 공장 운영을, 18.0%는 소비자 주문형 장류·양념류의 식품 가공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기타 지역 농협의 경제 사업 개발 가능 유형으로 조합원들은 농산물 집하장 및 저온 창고의 운영(2.6%), 농협 직영 종합 농기계 센터 및 농민 조합원의 차량 소유 증가에 따른 자동차 정비소의 운영(2.1%), 농협 직영 농용 자재 공급 센터의 운영(1.5%), 미곡 종합 처리장 운영(1.0%), 농협 직영 유류 취급소의 확대 및 참여(0.5%) 등을 추천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충북 북부 지역 농협 경제 사업의 개발 가능 잠재력이 크을 알 수 있으며 지리적·자연적 여건을 고려한 관광 농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충북 북부 지역 농협 직원에 대한 설문 조사 아무리 훌륭한 사업 구상이 있어도 이를 실행에 옮길 직원의 자질과 인식이 부족하다면 소용이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만큼 농협 직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충북 북부 지역 농협의 직원들은 자신들의 직장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고 있으며 농협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을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그 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농협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충북 북부 지역 농협 33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을 조사하였다. 응답자는 35.4세의 고졸 학력 수준(학령 13.3년)에다 10.3년의 경력을 가진 직원으로 대부분(57.6%)은 농협의 경제 사업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 표 17 > 협동조합과 일반 기업체 사업의 차이에 대한 의견

항 목	응답자 수(명)	비율 (%)
사업방식은 같으나 목적이 다르다.	11	33.3
사업방식도 목적도 다르다.	15	45.5
일반기업체의 사업과 다를바 없다.	1	3.0
잘 모르겠다.	6	18.2
합 계	33	100.0

< 표 18 > 협동조합 사업 중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한 의견

구 분	경 제 사 업					지도 사업	신용 사업	공제 사업	무응답	합계
	판매	구매	생활물자	이용및 기타	계					
응답자수 (명)	12	3	1	5	21	4	2	2	4	33
비율 (%)	36.4	9.0	3.0	15.2	63.6	12.1	6.1	6.1	12.1	100.0

협동조합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협동조합과 일반 기업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점에서 다르냐는 질문에 대하여 45.5%가 사업 방식과 목적도 다

르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대다수(54.5%)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협동조합이 앞으로 경제 사업에 보다 중점을 두기 위해서는 우선 농협 직원에 대한 협동조합 교육부터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는 협동조합 사업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63.6%가 경제 사업을 꼽았고 그 중에서도 36.4%는 예상했던 대로 판매 사업을 들었다. 이는 농산물은 유통 과정에서 특성상 위험이 수반될 뿐 아니라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여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충북 북부 지역 농협이 경제 사업에 보다 큰 비중을 두기 위해서는 경제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유인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합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하는 직원의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

충북 북부 지역 농협 직원들은 자신들의 직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69.7%가 협동조합을 “괜찮은 직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경력이 많은 직원일수록 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sup>5)</sup> 따라서 앞으로 적절한 교육과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면 농협의 경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항간에는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의 운영 원칙을 무시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조사에 응답한 농협 직원들의 48.5%만이 “협동조합이 명실상부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여 이러한 평가의 근거를

5) 응답자의 경력과 직장으로서의 협동조합에 대한 평가 정도를 나타내는 회귀 방정식  $Y=2.4204-0.0406X$ , 단, Y; 평가 정도, X; 경력,  $R^2$ ; 0.1046, T-value 1.903, DF 31 독립변수 부호가 마이너스인 것은 긍정적인 평가일수록 낮은 숫자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뒷받침하고 있었다. 이러한 평가는 응답자의 경력이 높을 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에는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비용 면에서도 보 완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신용 사업

< 표 19 > 응답자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및 평가

구분	항 목	응답자수(명)	비율(%)	구분	항 목	응답자 수(명)	비율(%)
협 동 조 합 에 대 한	평생 직장으로 생각 한다.	12	36.4	협 동 조 합 에 대 한	협동조합이 전적으로 명실상 부하게 운영되고 있다.	3	9.1
	그런대로 괜찮은 직장 이다.	11	33.3		협동조합이 명실상부하게 운영 되고 있다.	13	39.4
	보통이다.	8	24.2		그저 그렇다.	7	21.2
인 식	마지 못해 근무 하고 있다.	2	6.1	인 식	협동조합이 명실상부하게 운영 되지 않는다.	8	24.2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	0	0.0		협동조합이 절대적으로 명실 상부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	2	6.1
합 계	잘 모르겠다.	0	0.0	합 계	잘 모르겠다.	0	0.0
	합 계	33	100.0		합 계	33	100.0

### III. 요약 및 결론

한국의 농업과 농촌은 수입 개방으로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이를 타개할 농업협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이 강조된다. 그러나 한국의 농협은 다음과 같은 당면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① 지역 농협의 규모가 영세하여 과감한 합병을 통한 규모화가 요구됨에도 이의 진척이 매우 더딘 실정이다.

분석에 의하면 지역 농협 사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지역 농협은 지속적으로 합병을 유도하여 사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이점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② 농협은 신용 사업과 경제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종합 농협 형태를 띄고 있어서 향간에 농협이 상대적으로 수행하기 쉬운 신용 사업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 사업과 경제 사업 실적 상호간

과 경제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종합 농협 체제를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충청북도 북부 지역에는 5개 시군 46개면에 45개의 지역 농협이 설립되어 있어서 농민 조합원의 영농 활동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협의 활동에 대해서 농민 조합원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들이 원하는 농협 사업은 무엇인가? 또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직원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한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충북 북부 지역 45개 지역 농협 조합원 180명과 직원 33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 조사를 1996년 3-4월에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농협의 각종 사업 및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 사업은 소득 개발 사업,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 농기계 판매 사업, 영농 자금 대출 업무, 공제금 지급, 농산물 수입 반대 등 영농에 직접 필요하거나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이었으며, 긍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은 영농 후계자 및 부녀자 활동 지원, 편의 시설 대여 사업 등과 같이 다른 기구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었다.

6) 응답자의 경력과 협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정도 나타내는 회귀 방정식  $Y=3.3174-0.05124X$ , 단, Y: 평가 정도, X: 경력,  $R^2$ ; 0.1175, T-value 2.0323, DF 31 독립변수 부호가 마이너스인 것은 긍정적인 평가일수록 낮은 숫자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응답자들로 하여금 농협의 경제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라는 주문에는 36.6%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61.7%는 지역의 개발 주체는 농협이 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여 농협이 경제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으나 지역 경제 개발 주체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남아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응답자가 가장 많이 추천한 지역 실정에 맞다고 보는 경제 사업은 관광 농업 사업이었다. 이는 충북 북부 지역이 관광지로써 손색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충북 북부 지역의 관광 농업 개발 사업에 집중적인 연구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충북 북부 지역 농협 직원들은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다소 낮고 협동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오히려 많다. 그러나 그들은 직장에 대한 자긍심은 높은 편이며 경제 사업을 가장 어려운 사업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농협 직원에 대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이론 교육과 경제 사업 담당 직원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성우, "축협지역조합의 규모의 경제 및 비용보완성에 관한 연구", 축협조사월보, 1996, (3)
2. 김정주, "점촌단협 이용고 배당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농협조사월보 통권 370호, 1988
3. \_\_\_\_\_, "한국축산업협동조합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4. \_\_\_\_\_, "농촌 지역 개발을 위한 단위 농협 운영 평가 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5. 문기현, "전문협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1984. 6
6. 박종옥, "한국 농업협동조합 합병에 따른 적정규모에 관한 이론적 고찰", 충북대 대학원 논문집 6, 1980. 3
7. 이재등, "협동조합의 규모의 경제성에 관한 연구", 협동조합연구 제2집, 한국협동조합학회 1984
8. 진홍복, "단위조합의 발전수준별 유형화에 관한 소고", 협동조합연구, 제6집, 농협대학 농협 발전연구소, 1980. 2
9. \_\_\_\_\_, "협동조합의 경제와 조직의 통일적 파악", 한국협

동조합연구 제5집, 한국협동 조합 학회, 1987

10. 충청북도, 충북통계연감, 1994
11. 허길행, "단위농협 규모의 경제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12. Laidlaw, A.F, "Cooperative in the Year 2000",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1980
13. USDA, "Farmer Cooperatives for the Future," 1985